

대학원 후기

한성대학교 CryptoCraft Lap

2018년 겨울부터 2020년 겨울까지 2년 동안 서화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며 느낀 점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대학원 생활에 대해 얘기하게 되면 저희 연구실을 종종 치트키라고 비유합니다. 제가 느낀바, 저희 교수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하실 때 무언가에 비유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치트키를 사용하면 돈이 생기기도 하고 유닛 생산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선 돈과 유닛이 생기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공모전, 경진대회, 학술대회, 국내논문, 국외논문, 우수논문 등의 스펙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연구생 과정 없이 4학년을 마치고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펙이라고는 정보처리기사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연구실 홈페이지에 적혀 있듯이 정보처리기사 한 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스펙이 생겼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투자하는 노력보다 많은 보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비결은 지도교수님인데 이것이 저희 연구실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연구 방향, 주제로 시작해서 공모전, 경진대회, 논문 작성 등에 있어 저희가 바라보는 안목보다 훨씬 높은 안목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저 또는 여러분들이 혼자 연구하는 것과 교수님의 지도 및 피드백과 함께 연구하는 것은 능률의 차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치트키라고 비유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학생들의 개인 연구 시간을 매우 많이 제공해 주십니다. 아마 학생 분들이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제나 본인 연구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을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시겠지만 아마 연구실에 들어오고 다른 연구실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저희 연구실이 특이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학원생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 개념으로 연구비를 받게 됩니다. 저는 알바를 조금 해본 것을 제외하고 대학원을 오면서 돈이 생기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이후 현재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실의 학술적인 특징만 얘기 하였는데 친목적인 장점도 큼니다. 저는 4학년 때 저희 교수님 수업 중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학부생 때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듣는다고 그 교수님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떤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리눅스 프로그래밍 수업 때 저희 교수님으로부터 동그라미와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글로 쓰긴 어려우니 이러한 친목적인 특징들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일상생활 사진들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연구실에 대한 후기를 적어 보았는데 석사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구 분야를 구체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입학 당시 어쩌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문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양자 컴퓨터가 현재 사용하는 암호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극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양자 컴퓨터와 암호를 결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저는 처음 고른걸 끝까지 하게 되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시면서 끌리는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걱정이 된다면 교수님과 면담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러한 걱정이 안 된다면 잘 하고 있거나 잘 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연구 분야가 아닌 기본 공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컴퓨터 관련 학과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을 활용하긴 하지만 너무 논문 작업, 연구를 위한 지식적인 방면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기본 프로그래밍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혼자 시간에는 코딩 공부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수님이 토익을 방학에 한 번씩 보는 것이 좋다 하셨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영어 논문을 많이 보게 되서 자연스럽게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친한 친구가 3학년이라면 저는 저희 연구실에 꼭 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생활을 뒤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이 길어 보이는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은 아껴 써야지 했는데 방심해서 2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방심하면 2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방심하지 않고 아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융합 공학부
CryptoCraft Lab
장경배